

울릉 보살 빛등 거사 <10>

구성 : 김홍인



물 속의 그림자 (백유경(百諭經))

어리석은 사람이 큰 못에, 물 속 순금의 그림자를 보고는 "금이 있다"고 외쳤다. 곧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면서 금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물이 맑아지자 금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다시 들어가 진흙을 헤치고 찾았으나 또 찾지 못하고 지쳤다. 아버지가 연유를 물으니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물 속의 그림자를 보고, 그 금은 나무 위에 있는 금인데 그 그림자가 물 속에 나타난 것임을 아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것은 반드시 새가 금을 물고 가다가 나무 위에 둔 것일 게다." 그는 아버지 말을 따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금을 얻었다. 어리석은 저 범부들도 무지하기 그와 같다. '나'가 없는 다섯 가지 쌓임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니 저 순금 그림자를 본 사람이 부지런히 애써 그것을 찾았으나 한갓 수고하고 소득이 없음과 같아라.

옛 판화의 세계

병을 고치려 천신에 제사지내다 사천우불(祀天遇佛)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삼화는 말과 소, 양, 돼지 100마리씩을 천신에게 바치고 제사지내려는 왕을 제도하는 부처님과 대중들의 모습으로 짜여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변경 지방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목이라 했다. 하목은 외도를 받들어 섬겨 온 나라가 사교를 믿고 살생해 신에게 제사드리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왕의 어머니가 병으로 누운 지 오래됐으나 낫지 않자, 왕은 한 바라문을 불러 "내 어머니께서 병환에 시달려 오랜 시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바라문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자리가 거꾸로 잘못돼 음양이 조화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에 왕이 물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어머니 병환을 치유할 수 있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마땅히 소와 말, 돼지, 양 100마리를 준비해 그것을 죽여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병환이 낫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 말, 돼지, 양 100마리를 가져오게 해 제단에 나아가 천신에 제사지내도록 했다.

이때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왕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엾게 여겨 왕에게 찾아갔다. 왕은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 예배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운 지 오래됐기에 천신에게 제사지내 어머니의 병이 낫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말하기를 "곡식을 얻

고자 하면 마땅히 밭에 씨앗을 심는 일을 해야 하고, 큰 부자가 되고자 하면 마땅히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장수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큰 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일은 그 심은 씨앗에 따라 그 과실을 얻는 것이다. 천신에 제사지내는 것은 음란한 일로 사악한 것을 바른 행위로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죽여 살기를 구한다는 것은 살아남는 길과 더욱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100년 동안 신을 받들어 섬기며 소와 양을 희생 삼아 제사지내는 일은 자비를 행하는 일만 못하다."

부처님은 법문 후 몸에서 광명을 방출해 두루 하늘과 땅을 비쳤다. 왕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광명을 눈으로 보고는 도의 자취를 얻어 부끄러워하며 허물을 뉘우쳤다. 천신에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도 이 소식에 심경이 흐트러져 앓고 있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이 일이 있는 뒤부터 하목 왕은 삼보를 믿고 공경해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항상 10선도를 행하니 나라에는 오곡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고, 마음은 항상 흐릿하고 즐거웠다.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원인은 자신이 심은 씨앗에 따라 그 과실을 얻게 되는 것이니 하늘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교관화박물관장)



선학 스님(명주사교관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만행일기(수좌)



오늘은 천년 묵은 고목 나무의 뿌리처럼 오랜 세월 고독한 영혼으로 홀로 서 있는 목이 긴 학이 되어 푸른 하늘 맨 끝을 쫓고 싶다. 아, 나는 바람의 살로 옷을 입고 시린 달빛 걸음으로 방황하는 별이 된다 지친 은하수의 계곡을 넘어.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모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정안 하유기를 추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분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식, 조석예불 및 중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 공 통

소 리 : 중성, 거불, 복장계, 천수대장타법, 도량계, 현좌계, 기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제바라
나비춤 : 도량계, 다계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법스님(봉원사 육천범음대 출신)

<불화, 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도 등선구기, 덧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공, 탈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법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중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해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1. 서울지역 강의 (장소 : 서울 조계사 근처)**
 - 개강일시 : 9월 4일 (목)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 2. 부산지역 강의 (장소 : 부산 초량동 부산컴퓨터과학고 정문 앞)**
 - 개강일시 : 9월 6일 (토) 오후 1시 30분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 3.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도량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명시식 등)
-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신분증 사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행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보은사 석가모니후불탱화

보은사 신중탱화

보은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은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